“화합을 근본으로 소통하라”

조계종, 1월 9일 통도사 설법전서 신년하례법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불기2567(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종단 화합과 자비를 강조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1월 9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개최된 신년하례법회에서 계묘년 새해 가르침을 전했다. 성파 대종사는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리기 쉽고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화살에 맞을 위험이 있다(數飛之鳥忽有羅網之殃 輕步之獸 非無傷箭之禍)”라는 야운 선사의 자경문 말씀을 상기시키며 “항상 조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로 자비 문중의 본분을 다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근본으로 삼을 것”을 교시했다.

성파 대종사는 “계묘년에는 무엇보다 화합을 근본으로 삼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동체대비 사상을 공고히 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문중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며 “이 시대는 자신의 말과 행동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불통과 혐오의 시대로 코로나 시대 못지않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대화합의 자세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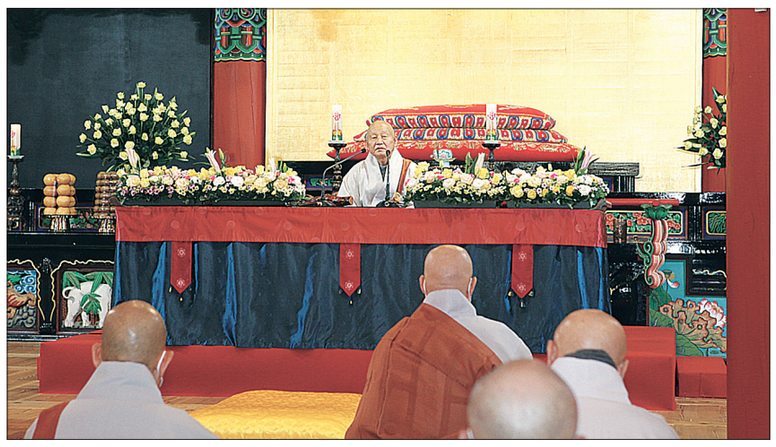
성파 대종사는 “조선시대 억불정책과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불교는 자비문중의 자세로 불교를 지켰다.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민중을 구하기 위해 불살생의 계를 어겨도 승병을 일으켜 호국불교의 역할을 또한 다했다. 지금 우리 불교는 동체대비의 자세와 민족을 위한 자세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파 대종사는 민족 문화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호하는 자세를 요구했다. 대종사는 “나라가 망해서 없어져도 민족의 문화가 살아있으면 회복 할 수 있다. 민족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배워야 한다. 우리 불교계는 민족 문화와 정신을 지키고 발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정 예하의 가르침을 받들고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의 모든 소임자는 종정예하와 원로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한국불교의 자긍심을 드높여 종단 발전과 새로운 천년의 중흥을 위해 진심으로 소통하고 신심으로 포교하며 공심으로 원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정예하 자비 화합 주제 법어
“불교, 동체대비 실천 나서야”
민족문화 수호자 역할도 강조
진우 스님 “종단 화합에 최선”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1월 9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신년하례에서 신년 법어를 내리고 있다.

스님은 “세계적으로 종교에 대한 의지가 약화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고 불교 또한 위기를 직감하고 있다. 이러한 때 제37대 종단 집행부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제2의 불교 중흥이라는 중차대한 도전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자 한다”면서 “그 일환으로 1000년 전에 조성되어 넘어져 계신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반듯이 일으켜 세움으로서 불교 중흥의 발판으로 삼아 미래 천년을 세우는 계기로 삼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코로나 감염병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의 고난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모두 ‘증오와 분노로 거칠어진 마음 밭을 인내와 용서하는 화해의 덕성으로 인간의 뜰을 소생시키라’는 종정 예하의 신년 법어를 마음 깊이 새겨 조속히 전쟁이 끝나고 모든 인류가 평안해지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신년하례법회에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를 비롯해 무봉 성우 대종사, 두산 일면 대종사, 상월 보선 대종사, 지공 철웅 대종사, 자광 원행 대종사, 불영 자광 대종사, 익산 도후 대종사, 삼이 우경 대종사, 보륜 성오 대종사, 대궁 종상 대종사, 여산 정여 대종사 등 원로 대덕 스님들이 자리했다. 또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교육원장 혜일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참석했다.

‘천년을 세우다’ 불사 대장정 첫걸음

1월 11일 발족식… 추진위원 등 위촉해
진우 스님 “마애불 입불, 성스러운 불사”
불사 동력 결집해 4월 19일 추진위 출범

조계종 제37대 집행부 주요 종책사업인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명상센터 건립 불사를 추진하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월 11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천년을 세우다’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천년을 세우다’는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슬로건으로 ‘과거 천년’을 세워서 ‘미래 천년’을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과거 천년’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미래 천년’은 진우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미래 동력을 결집하는 불사를 의미한다.

이날 발족한 추진준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마애불 입불과 명상센터 건립 불사의 범불교적 원력과 동력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위원회 증명은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추진위원장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맡았다. 자문위원으로는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직지사 회주 법등 스님,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이 위촉됐으며, 추진위원에는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주요신도단체장, 문화재 전문가, 교계 언론 대표, 불자대상 수상자 등이 참여한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추진단장은 불국사 주지 직무대행 종천 스님과 문화부장 탄원 스님이, 명상센터 건립 추진단장에는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 지역불교 활성화 추진단장에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미래세대 인재 양성 추진단장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각각 위촉됐다.

또한, 추진준비위원회는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 의장단 · 상임분과위원장, 재가대표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추진위원회 출범의 준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라며 “열암곡 부처님을 일으켜 세움은 자연스럽게 중생의 고통을 여의는 아란야 명상센터를 건립하는 불사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그것은 지역불교활성화이며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과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세우기 추진을 위해 모이신 사부대중은 한국불교의 중흥과 뭇 생명의 평안과 행복을 구현하는 공동체의 원력보살”이라며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를 통해 ‘종단중흥과 국민행복’의 시대를 상징하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우고, 미래 천년을 위한 불사 회향의 그 날까지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 이후 조계종 미래본부는 본격적인 동력 결집에 들어간다. 미래본부에 따르면 1월 25일부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 매일 기도 정진에 들어간다. 기도는 도감 본오 스님을 중심으로 경북 5개 · 경남 3개 본사 스님들이 참여하는 기도법사단이 구성돼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중으로 열암곡 마애불 보존관리 방안 연구용역 세미나를 열고, 내년 입불 실대형 모의실험을 거쳐 2025년 마애불 입불을 추진한다는 게 조계종의 복안이다.

또한 순례기도 프로그램 개발, 모연방법 등 대중사업 내용 준비, 사회각계 인사 추진위원 섭외 등도 이뤄진다. 미래본부는 이 같은 동력 결집을 통해 오는 4월 19일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은 1월 11일 ‘천년을 세우다’ 추진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에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 고운사 회주 호성 스님, 강창일 前 주일대사를 위촉하는 모습.

진우 스님 “사찰림 보존 협력하자”

1월 1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예방서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사찰림 보존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예방에서 진우 스님은 “국립공원 내 종단 사찰이 340여 곳이 있고, 사찰 소유 토지가 공원 내 면적의 7%에 달한다”면서 “이런 사찰림이 지금까지 잘 보존될 수 있던 것은 스님들의 노력과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사찰림의 역할은 더 확대될 것”이라며 “사찰림 보존과 활용에 대한 종단과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기회로 불교계가 그간 상당 부분 (보존과 관리에)기여해 온 점을 알 수 있었다”며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성화 스님과 사회부장 범종 스님,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배연진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김도헌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장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 대통령기록관 MOU

문화프로그램 공유 약속

세종 전통문화체험관(관장 동환)과 대통령기록관이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월 11일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문화체험실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견학 ·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기록관과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공동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협력과 지원, 교육 · 전시 · 홍보 · 연구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 양 기관의 각종 정보와 결과물의 공유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중장기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동시에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계획의 일환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방문하는 연간 2000여 명의 전국 학생들에게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와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기록물의 전시와 공개 열람, 교육, 홍보까지 겸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서 시민의 문화 여가 생활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세종시 세종동에 2022년 8월 개관한 문화체험관이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월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2학년	각 배	각 배	수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3학년	실 기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불공, 시식	목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3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3년 3월 첫째주 월요일(3월 6일)
※개강 이후 3월 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태 호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